



5면

바이전주 활성화 위한 소통 나서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음 8월 21일) 제3040호

대표전화 (063)288-9700



전기차 핵심소재인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를 생산하는 성일하이텍(주) 제3공장 기공식이 15일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제2공구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이강명 대표이사,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공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성일하이텍 새만금산업단지 제3공장 '첫 삽'

폐배터리 활용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 생산... 내년까지 1300억원 투자 130여명 고용 창출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제2공구에서 전기차 핵심소재인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 생산을 위한 성일하이텍(주)의 제3공장 건설이 첫 삽을 떴다. 성일하이텍(주) 이강명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 전북도의원, 김동원 전북대 총장, 강병수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유관업체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들어간다.

성일하이텍(주)는 독자적인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로 인해 폐배터리 발생량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새만금에 제3공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국내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해체기술을 가진 성일하이텍의 제3공장 건립이 새만금 이전이나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들에 좋은 본보기가 돼 주길 기대한다"며 "새만금이 배터리 재활용 산업 나이가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가 되도록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리튬이차전지용 소재를 생산하는 새만금 산업단지 제3공장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사업장 조성과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주)전비엠에스, 올해 (주)리튬테크피아, (주)배터리솔루션 등 연이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기

업의 투자로 새만금이 미래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일하이텍(주)는 2021년 12월 10일에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새만금산업 제2공구 75천㎡(22.8천평)에 2023년까지 1,300억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하고 130명의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건립 예정인 제3공장에서는 군산 국가 산업 내 제1~2공장에서 폐배터리를 분리·분쇄해 만든 배터리 파우더를 원료로 습식제련을 통해 유기금속(코발트, 니켈 등)을 추출할 예정이다. /김경수기자·군산=김판곤기자

도, 8월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 총 27억원 규모

재난지원금 7억·시설복구 20억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지난달 8~17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중부지방(서울, 경기 등) 중심으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도내 북부지역(군산, 익산 등)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10~11일, 15~16일 호우 경보가 발표되어 주택 및 농경지

등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비는 평균 152.5mm로 최고는 완주 261.3mm, 최저는 고창 23.3mm였다. 비구름대가 북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강수량의 지역 편차가 크게 발생했다. 8일부터 17일까지 호우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도내1개 시군, 968(간사 967, 공공 1), 피해액은 2억300만원(사유 141, 공공 62)으로 전국 피해액 3.154억원에 비해 적게 발생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7억, 공공시설 복구비 20억원 등 총 2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이 빠짐없이 지원되어 빠르게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은 오는 18일(법정 7일+3일)까지, 사유시설은 23일(법정 10일+5일)까지 연장을 접수 중에 있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호우 피해

를 본 도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도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 바란다"고 말하면서 "여름철 대책기간 종료시 까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피해 입은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수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정부, 공공비축미 물량 100만 확대 매입하라”

전북도, 7개 도와 쌀값 안정 공동성명서 발표 재고량 전량 매입 등 쌀값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 양곡관리법 개정 통한 쌀 수급 안정 대책 의무화 등

전북도와 7개 도가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15일 김관영 도지사는 정부를 상대로 쌀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7개도(전남·경기, 강원·충남·북, 경남·북)와 한 목소리로 '대정부 공동성명서 발표'에 나섰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소비량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쌀값은 전년 동기 대비 24.8% 하락한 16만4,740원/80kg을 기록,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쌀값 17만원 선이 무너졌다. 세 차례 정부의 37만톤 쌀 시장 격리에도 7월말 기준 전국 농협 재고물량은 42만8,000톤으로 지난해 동월 23만7,000톤 대비 81%가 증가해 2022년산 산물벼 저장 여석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의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농민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이날 성명서에서는 쌀 재고 과잉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의 안정화를 위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첫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22년산 신곡 출하 전 2021년산 벼 재고량 전량 매입, 2022년산 쌀매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 신속 시행,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를 제도화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그간 쌀 시장 격리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쌀값 안정화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캠핑객 증가... 전북소방 "캠핑 중 화재 주의 필요"

화재 주 원인은 부주의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캠핑객이 늘고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5일 전북소방본부가 한국관광공사의 '2021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국 캠핑 이용자는 2019년 399만 명에서 2021년 523만명으로 31% 증가했다. 이처럼 캠핑객이 증가함에 따라 캠핑 중 발생하는 화재도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캠핑 중 화재는 19건 발생해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캠핑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화재 건수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건, 3건, 5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캠핑 중 발생한 화재의 주 원인은

화원방치 등 부주의가 78.9%(15건)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 5월 부안에서는 휴대용 버너에 가까이 둔 부탄가스 용기가 폭발하면서 불이 나 텐트에서 자고 있던 1명이 양쪽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월 완주에서도 텐트 내 난방을 위해 사용하던 난로의 불꽃이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어 불이 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설과 소화기구의 위치, 안전수칙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텐트 내·외부에서 난방기구나 화로대를 사용하는 경우 불이 가연물에 옮겨 붙을 수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질식 위험이 있어 주변에는 소화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 등 안전장치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